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5호 [루게 제25043호] 주제104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최룡해동지, 김양건동지, 리일환동지, 김춘섭동지, 조준봉동지,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김여정동지, 정승일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갖가지 질 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를 의의있게 조직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 품평회에는 군수공업부문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하고있는 1,800여종에 달하는 생활필수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품평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생활필수품들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지 및 금속제품들, 가정용전기제품들, 완구, 경질유리그릇, 가구 등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많이 출품시켰다고 하시면서 품평회장에 전시된 제품들마다에는 인민생활향상에 보탬을 주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있는 군수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여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4년 8월 군수공업부문에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도록 직접 발기하신 때로부터 지난 60여년간 이 사업은 당과 국가를 위한 우리 군수로동계급의 애국운동으로 발전되어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와 심혈을 언제나 잊지 말고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을 대를 이어 전해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 질 좋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문제, 우리의것을 지키는 문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 일군들이 이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을 자신들도 책임지고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생활필수품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생활필수품의 가지수와 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든 생산기지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몹시이고 질 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생활필수품생산기지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손이 가지 않는 제품은 백만개, 천만개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생활필수품생산에서 중요한것

은 인민들이 어떤 제품들을 좋아하는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제품생산에 힘을 넣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생활필수품생산기지들이 그쁘히 마련되어있고 우리 군수로동계급에게 여러가지 필수품들을 만들어본 경험도 있는 조건에서 마음먹고 달려붙으면 얼마든지 보기에 좋고 쓸모가 있는 높은 수준의 제품들을 생산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생산한 질 좋은 생활필수품들이 상점들마다에 꼭 자넉치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생활필수품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자신께서 직접

풀어주고 적극 도와주겠으니 해당 부문에서는 이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가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 로동계급들이 질 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투쟁이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는 자각을 안고 생활필수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므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우리 당과 혁명앞에 쌓으신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 선군조선의 앞길에 별처럼 빛나는 항일의 녀성영웅

경사로온 10월의 대축전장에 드릴 자랑찬 로력적신물을 마련해가는 수장은 군인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다가오는 경모의 정이 담긴 꽃다발을 삼가 드린다.

뜻깊은 당창건 70돐을 앞두고 온 나라 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꿰어 달리는 9월의 오산턱은 사람들에겐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녀성혁명가의 거룩한 업적을 소중히 되새겨주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력사의 갈피에 위대한 당원의 귀감으로 숭엄히 빛나는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 그녀의 고결한 혁명생애는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믿음직한 선봉투사가 되어야 할 우리 당원들의 숭고한 모범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순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무한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비록 서른두해라는 길지 않은 생애를 사시지만 우리 당과 혁명앞에 위대한 공적을 쌓아올린 탁월한 녀성혁명가이시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위하여 불멸의 혁명유산인 남기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시였다.

일찍이 항일투쟁투쟁에 나서시어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나보았을 때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투쟁하겠다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영원히 그녀의 혁명전사답게 멋있게 살며 역세로 투쟁하겠다고 뜨겁게 심장의 땀을 다지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제 26(1937)년 1월 3일 사령관에게 대한 열화같은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신것으로 하여 당원의 영예를 지니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우리 당의 강과약점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조국과 혁명앞에 대를 두고 같이 빛날 불멸의 공적을 쌓으시였다.

령도자의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은 당원의 제일생명이요, 당은 령도자의 혁명사상에 의해서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회령시에서—

있고 당원들의 충실성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이것은 김정숙동지께서 항일의 날 위대한 당원의 빛나는 귀감으로 새겨주신 귀중한 열리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청봉밀영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시던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숨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일시적인 난관앞에 겁을 먹고 사심적으로 변질타락한 밀영책임자와의 대결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옹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대고 싸워야 했는 심각한 정치투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당원은 어떻게 살아 투쟁해야 하는가를 혁명실천으로 보여준 지

대한 사실이었다.

그때 밀영책임자였던 엄광호는 자기의 반혁명적정체를 가리키기 위해 《독야사건이며 《간첩사건》까지 조작해내고 밀영의 내내원들에게 갖은 고문까지 들이대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내내원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옹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주제 28(1939)년 봄 북대정사에 이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봉밀영에서 있는 사건을 전진적으로 료해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방면군 당원회의에서 심중히 트의하신 후 지휘관 및 병사대회를 소집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엄광호의 죄행을 날같이 폭로규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

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청봉밀영에서 발휘한 투철한 혁명적헌신성과 숭고한 충실성은 혁명가의 생애, 당원의 신념이던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고수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산모범이었다.

언제나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청봉밀영에서 혁명가의 신념, 당원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운 김정숙동지의 영웅적유언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때 김정숙동지가 앞장에 서서 엄광호의 패배주의를 뒤적 비판하였음을 드디어 판판된 문장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정정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혁명가의 신념, 당원의 신념이던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고수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산모범이었다.》

동경지령에서 계시 때에도 사령부의 명령관철을 태공하는 립수신의 고의적인 배반행위를 제때에 간파하시고 불리한 몸이었지만 당원의 의무를 지켜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항일 투쟁과정의 간고하였던 1930년대, 1940년대에는 온갖 원수들의 끊임없는 모략과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수령의 혁명사상과 사령부의 령도적권위 확보에 용고 고수되고 주체혁명위업이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었던 것은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이념 투철한 수령적사상과 때때로 폐배주의를 뒤적 비판하였음을 드디어 판판된 문장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정정하지 않으셨다.

수령적사상용, 이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당원회에서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기에서 간파하신 생의 지조, 추후에

치밀한 격전을 치른 후 진행된 사령부 당세포총회에서 우리 사령부당세포의적인 배반행위를 제때에 간파하시고 불리한 몸이었지만 당원의 의무를 지켜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항일 투쟁과정의 간고하였던 1930년대, 1940년대에는 온갖 원수들의 끊임없는 모략과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수령의 혁명사상과 사령부의 령도적권위 확보에 용고 고수되고 주체혁명위업이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었던 것은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이념 투철한 수령적사상과 때때로 폐배주의를 뒤적 비판하였음을 드디어 판판된 문장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정정하지 않으셨다.

수령적사상용, 이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당원회에서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기에서 간파하신 생의 지조, 추후에

때에 발가놓으시고도 장부록, 흥기하, 대사하치기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시슴없이 내대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행군할 때에는 사령부를 노리는 적의 총구를 감시하시며 늘 사방을 살피고 귀를 강구시며 걸음을 옮기시었고 어쩌다 치명적인 행군의 휴식장에는 어머니수령님의 식사보장을 위하여 뛰어다니시느라 한번 제대로 붙어 보지 못하신 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보장을 당적분공으로 자신의 심장속에 새겨안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일들을 대신할수가 없었다.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숨에서 투사들은 혁명가의 망명과 리, 당원의 혁명적신념과 지조는 곧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란것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혁명의 1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우리 당의 역센 뿌리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마련하는 길에서 새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의 글밭에는 바로 백두의 녀장군의 그 숭고한 모범으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받들어 혁명가의 신념, 당원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싸우려는 절절한 당부가 담겨져있다.

해방후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되고 그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면 나날에도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가 일제를 반대하여 싸울 때 당조직성원들과 혁명군대원들은 당이란 곧 김일성장군님이라고 생각할수 없다고,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를 주지 않는것이 우리들의 신념이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멸망시키려는 김일성장군의 당으로 강변할것이기 위해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항일 투쟁의 나날은 어머니수령님에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당원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였다.

혁명의 수령, 위대한 당을 만드는 길에서 당원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모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자과 백두의 녀장군의 앞길에 언제나 찬란히 빛날것이며 그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우리 당은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명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준혁 사인 본사기자 김규혁

### 사연깊은 사령부당세포회의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더듬어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항일의 그 나날에 있었던 사령부당세포회의의 숭엄한 장면이 펼쳐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는 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며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란 것은 우리 어머니의 절대불변의 신조였습니다.》

주제 29(1940)년 8월 소환반회의후에 있는 일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속하신 사령부당세포회의는 경중대회의의 작은 성원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길을 떠나게 된 소부대는 출발에 앞서 당세포회의를 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사령부당세포회의의 중요성과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정력적으로 토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를 가까이 모시고있는 우리 사령부후위성원들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령관동지의 신념옹위를 잘

하는것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전투에 굳건히 서계셔야 조국의 광복도 혁명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령부당세포회의는 마땅히 자기의 기본적 임무를 사령관동지에 대한 옹위사업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심장이 그대로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옹위하는 열의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토론은 전체 당원들의 심장을 무한히 감동시켰다.

그것은 당원들에게 하는 호소이기 전에 항일 당원이라면 어떤 사람이며 당원의 삶은 무엇으로 빛나야 하는가를 다짐으로 이끌어 주었다.

사령부당세포회의가 있는지 며칠 지난 가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행군하던 소부대가 해질무렵에 밀령숙의 어느 한 골짜기에서 숙영하던 때의 일이다.

숙영준비를 끝낸 대원들이 천막안에서 잠시 휴식하고있을 때

한 낯선 청년이 보초소앞에 붙박 붙박 다가와 유격대를 찾느라고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고 말하더니 청년은 의심할만 한 점을 찾아내주었다.

저녁식사준비를 하시면서도 사령부신문과 책을 자주 살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급히 달려와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잠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더니 그 청년의 휴대품을 보자고 하시였다.

청년의 물건 하나하나를 예리한 눈길로 간중히 살펴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난한 우리 어머니들과 순박한 이나대들의 살뜰한 손길로 아니라 질 좋은 생선유를 제봉으로 막아 만든 쌀 주머니와 여러날 산에서 밤을 헤매었다는 사람의 남비에 그를 을 하나 묻지 않은것을 발견하고 대를 그자의 정체를 판단하시였다.

그날 저녁식사를 마친 후 김정숙동지께서는 당세포회의를 소환하시어 오늘 사건을 가지고 세포회의를 가졌것을 제기하시였다.

당세포회의의 토론에 참가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언제

누구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도전에서 지하공작을 하시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시었을 때 감옥에서 조직의 자금으로 써달라고 돈 2원을 보내신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돈 2원은 김정숙동지께서 최후를 각오하고 보내신 돈 2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생애를 추억하시면서 그때의 사실을 두고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항일투쟁투쟁시기 장백현 도전리에서 지하공작을 하시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시었을 때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시지요.》라는 쪽지편지와 함께 돈 2원을 혁명조직에 보내시였습니다.》

최후를 각오하고 보내신 돈 2원, 여기에 혁명조직을 언제나 꿰고 있었으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이

그러도 응수되어있다.

지나온 한생을 값있게 총화짓는 최후의 그 시각을 앞두고 조직을 생각해주시며 자신의 재산의 전부인 돈 2원을 보내신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조직원인 그 길에 가름아나시면서 다짜고짜로 팔도구를 향해 걸으라고

그 돈 2원은 김정숙동지께서 최후를 각오하고 보내신 돈 2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생애를 추억하시면서 그때의 사실을 두고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항일투쟁투쟁시기 장백현 도전리에서 지하공작을 하시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시었을 때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시지요.》라는 쪽지편지와 함께 돈 2원을 혁명조직에 보내시였습니다.》

최후를 각오하고 보내신 돈 2원, 여기에 혁명조직을 언제나 꿰고 있었으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이

시기를 지어 혁명투쟁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하신 그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실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김정숙동지께서 언제나 원 락임무를 수행하실 때 경관들인 그 길을 가르막아나시면서 다짜고짜로 팔도구를 향해 걸으라고

그 돈 2원은 김정숙동지께서 최후를 각오하고 보내신 돈 2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생애를 추억하시면서 그때의 사실을 두고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항일투쟁투쟁시기 장백현 도전리에서 지하공작을 하시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시었을 때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시지요.》라는 쪽지편지와 함께 돈 2원을 혁명조직에 보내시였습니다.》

최후를 각오하고 보내신 돈 2원, 여기에 혁명조직을 언제나 꿰고 있었으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이

조직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 기울이시였으며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 평범한 당원인 것처럼 고 당규약상규대로 세로위원장에 담배를 바치시면서 당원인 길을 가르막아나시면서 다짜고짜로 팔도구를 향해 걸으라고

최후를 각오하고 보내신 돈 2원, 여기에 혁명조직을 언제나 꿰고 있었으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이

호통치자들에 없었던 사랑하는 조카를 내리놓으시고 인니를 데려오겠다고 하시며 반박적점으로 달려가시었다는 이야기도 그 중의 하나이다.

후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그때 혁명조직에서 준 임무를 무조건 수행하라는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꿰고 있었으며 그 관철을 위해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신 백두의 녀장군의 숭고한 혁명적조직원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귀감을 최후를 앞두고 보내신 돈 2원이 다 말해 주고있는것이였다.

사연깊은 그 돈 2원에 해방 후 우리 당이 갖 창건되었을 때 스스로 당세포회의를 찾아가지어 당적분공을 받으시었고 당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9월 21일합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방문 하였다. 여기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파공화국 대통령령 마리에루이스 콜레이로 프리카카하

나는 말파독립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오랜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과 념원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양

주제104(2015)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방문 하였다. 여기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파공화국 대통령령 마리에루이스 콜레이로 프리카카하

나는 말파독립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오랜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과 념원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평양

주제104(2015)년 9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저한 뜻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라선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1일 라선시 선봉지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권선로국가건설감독장, 강령수도시경정상을 비롯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팀장인 라선시당 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 라선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장용길, 선봉지구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상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 당은 의도대로 라선시 선봉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자

라선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저한 뜻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라선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1일 라선시 선봉지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권선로국가건설감독장, 강령수도시경정상을 비롯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팀장인 라선시당 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 라선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장용길, 선봉지구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상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하여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라선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1일 라선시 선봉지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권선로국가건설감독장, 강령수도시경정상을 비롯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팀장인 라선시당 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 라선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장용길, 선봉지구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상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하여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라선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1일 라선시 선봉지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권선로국가건설감독장, 강령수도시경정상을 비롯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팀장인 라선시당 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 라선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장용길, 선봉지구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상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하여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라선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1일 라선시 선봉지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권선로국가건설감독장, 강령수도시경정상을 비롯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팀장인 라선시당 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 라선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장용길, 선봉지구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상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라선시공공서비스구역합치취부,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 당 창건 일흔들을 높은 석탄생산성으로 빛내이자

## 자기 단위 사업을 이틀처럼 책임지자

개천지구 탄광권 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창건 일흔들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일군들의 탁상우에 놓여진 권투입력기 한장한장 던져질 때마다 변함없는 탄광에서는 자량이 높아지고 있다.  
화력탄보장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탄광, 일군들이 앞을 내다보며 기업판리를 활발적으로 하는 탄광, 이전시기에는 생산이 뒤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정상화제도에서 확고히 올라선 탄광, 당창건 일흔들 전으로 운반물량을 줄이고 석탄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가는 탄광...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투쟁의 혁명적성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제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가 합시다.》  
뜻깊은 올해에 이렇듯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변함없는 탄광들에서 당창건 일흔들을 맞이하며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 면모가 일신되고 있다.

오늘은 어느 탄광의 구내길에 한해졌다던 또 어느 탄광에서는 몇명이 갯길에서 보란듯이 일러서고 탄부들이 사는 마을들이 번듯하게 꾸러지고 있다.  
당창건 일흔들을 앞두고 뚜렷한 성과들이 앞을 다투며 이룩되고는 있지만 탄광들에서 당창건 일흔들을 맞이하는 탄광들에서는 그나마 당창건 일흔들이 바가 있다.  
이룩되고는 모든 성과들이 매개단위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창발적인 성과들이라는 것이다.  
변함없는 모든 탄광들에서 많은 양의 통발나무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계속적으로 늘이는 추념부터 보이기 하자.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변함없는 사업에서 당창건 일흔들을 맞이하는 탄광에서 통발나무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을 석탄생산의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일군들과 탄부들을 불러들이었다.  
이 사업은 이미전부터 벌어지고있는 사업이면서 변함없는 투쟁부서에서 지난 시기부터 해온 정형도 있고 신문과 과학기술문헌들에 소개되어 일반화 된 여러가지 좋은 방안들도 있었다.  
그러나 변함없는 탄광에서 자기가 단위에서 이룩된 기술

혁신성과에서 좋은 측면은 적극 살피고 다른 단위에서 이룩된 기술혁신성과와 도입경험에서 받아들일것은 받아들일수록 하는 과정은 해당 단위의 독자성과 상상성이 남김없이 발휘되어 더 좋은 기술혁신성과를 이룩해가는 계기로 되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단위에서 통발나무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도록 한데 맞게 변함없는 사업조직체제를 발족해가는데 힘썼다.  
이 과정에 여러가지 가치있는 방안들이 나왔는데 통발나무 절약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탄광에서 이룩된 성과를 종합하여 변함없는 사업조직체제를 발족해가는데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 여러가지 가치있는 방안들이 나왔는데 통발나무 절약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탄광에서 이룩된 성과를 종합하여 변함없는 사업조직체제를 발족해가는데 힘을 쏟았다.

## 자강도 공업탄광 일군들과 탄부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백두의 넘고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대조국의 조국과 부강민족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창건 일흔들을 어떻게 하면 빛나는 로적정쟁을 위한 투쟁에 맞게 승리자가 되어야 할까?  
지난 8월말, 당조직의 지도원에 일군들은 협의회를 열었다. 갯길 위변산사회주의경쟁의 도수를 높여 최단기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무조건 수행할수 있는 것이 모두의 일치한 의견이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다. 탄광들의 일군들이 자에서 일하였다.  
《우리 가두인민반원들과 사회주의경쟁에 참가시켜주시고, 지구별로 한계 갯길의 탄부들의 생산을 높이고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마을을 꾸리는 사업도 경쟁요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쟁열풍속에 하루가 다르게 갯길의 면모도 일신되어가고 있다. 갯길의 벽면들이 한해지고 구내의 환경이 번듯해진다. 갯길위변산사회주의경쟁이 막장에 들어가는것만은 절대금지입니다.》  
탄광이 생겨 하마는 생산 및 채유경기를 포함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려왔지만 이렇듯 탄부들과 인민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가지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하고 응원열풍이 고조되는 탄광은 승리자의 10월을 앞두고 부끄럽지 않게 승리하는 탄광이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이 한해 갯길위변산사회주의경쟁의 면모도 일신되어가고 구내의 환경이 번듯해진다. 갯길의 벽면들이 한해지고 구내의 환경이 번듯해진다. 갯길위변산사회주의경쟁에 참가시켜주시고, 지구별로 한계 갯길의 탄부들의 생산을 높이고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마을을 꾸리는 사업도 경쟁요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쟁열풍속에 하루가 다르게 갯길의 면모도 일신되어가고 구내의 환경이 번듯해진다. 갯길위변산사회주의경쟁에 참가시켜주시고, 지구별로 한계 갯길의 탄부들의 생산을 높이고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마을을 꾸리는 사업도 경쟁요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회물아치는 증산경쟁열풍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백두의 넘고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대조국의 조국과 부강민족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창건 일흔들을 어떻게 하면 빛나는 로적정쟁을 위한 투쟁에 맞게 승리자가 되어야 할까?  
지난 8월말, 당조직의 지도원에 일군들은 협의회를 열었다. 갯길 위변산사회주의경쟁의 도수를 높여 최단기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무조건 수행할수 있는 것이 모두의 일치한 의견이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다. 탄광들의 일군들이 자에서 일하였다.  
《우리 가두인민반원들과 사회주의경쟁에 참가시켜주시고, 지구별로 한계 갯길의 탄부들의 생산을 높이고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마을을 꾸리는 사업도 경쟁요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쟁열풍속에 하루가 다르게 갯길의 면모도 일신되어가고 구내의 환경이 번듯해진다. 갯길위변산사회주의경쟁에 참가시켜주시고, 지구별로 한계 갯길의 탄부들의 생산을 높이고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마을을 꾸리는 사업도 경쟁요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심을 틀어쥐고 혁신적으로 사업할 때

조양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혁명적투쟁, 기업정리를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높이 제 모습을 잃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조양탄광은 화력탄보장에서 전국의 앞장에 선 모범적인 단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보장함에 대한 전투적조치를 받아들인 그 때부터 올해 현재까지 탄광에서는 화력탄보장을 그 어느 단위보다도 책임적으로 하고 있다.  
탄광에 가보면 어디를 가든 탄부들의 전투적사기가 높고 저항정에는 늘 석탄이 가득 쌓여 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탄광의 생산실태는 그리 좋지 못하였다.  
일이 잘되는 모든 단위가 다 그러하듯이 석탄생산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 있다.  
어떤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

중심을 틀어쥐어야 하듯이 이곳 일군들이 중시하고 힘을 넣은 문제가 있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탄광에서 석탄생산은 높이려면 탄사와 골질을 앞세워 미세탄장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가르치셨다.  
당조직의 지도원에 탄광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석탄생산에 탄사와 골질을 확고히 앞세우는 데 주의를 힘에 넣고 있다.  
지난 시기 탄광에는 탄사력량만 부족하였다.  
이런데로부터 골질성률을 높일수 있었다.  
지배인 련동철공부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어느 한 석탄탄사에 소홀하지 않았던 한해 탄사소대를 넘겨받아 탄사력량을 강화하였다.  
탄사를 앞세워 전장이 좋은 채탄구역들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갱, 1갱을 비롯하여 생산조건이 불리한 갯길에서 생산의 돌파구를 여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능력이 큰 압축기를 중심으로 여러 골질소대에 작업기바람을 보장하면 골질의 방식

## 한 시각도 지체 없이

개천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 인민군정당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탄광을 타게하기 위한 긴급협의회를 열어 탄부들이 한데 모여서

숨이 들어들었다. 탄광의 운반로선 마다에서는 걸사운철의 합성기 높이 울리었다.  
당창건 일흔들까지 지난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줄 것을 의논한 전진2갱 채탄1중대 채탄2중대, 동맹 채탄1중대 채탄3중대의 탄부들이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면 앞장에 섰다.  
지상단위의 로동자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화력발전소 보낼 석탄보장을 위해 총성의 구슬땀을 흘리었다.  
탄광참모부에서는 불리한 조건에 맞게 정해진 시간이 따르건 갯길의 생산정형을 알리려고 계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갯길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탄부들의 투쟁열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하여 예정했던것보다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보내 줄수 있었다.  
화력발전소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를 들으며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렇게 마음다졌다.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여, 석탄생산은 넘버하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병



##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전람회개막식이 21일 3대혁명전진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로동부 내각부총리, 리봉남내무경제상, 김인철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경제무역부부 일군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박용식 조선국제전람회사장의 개막인설에 이어 오봉철 대외경제

전람회기간 참가자들이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헌명령도말로 사회주의경쟁적투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확대하여 무역, 투자,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 무적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유엔 총회 제70차 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출발

【평양 9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유엔총회 제70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2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신총철 외무성 부상이 전송하였다. 동아시아축구련맹 대표단이 떠나갔다.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떠나갔다.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떠나갔다.

## 세계알프스하이머의 날 기념토론회 진행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세계알프스하이머의 날 기념토론회가 21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주최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주조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년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인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치매실태에 대하여》, 《세계적인 인구로화와 치매》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함흥남새전문농장 온실분장에서

에서는 10여가지의 갖가지 잎담배와 열매담배들을 재배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남새전문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온실농사를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하여 실질적인 인민들이 먹을 보도록 제해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다. 농장의 일군들은 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학습과 영농정열에 따르는 기술전습을 실속있게 하여 누구나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온실남새생산을 잘해나가기로 하고 있다. 몇해전부터 온실분장 일군들과 농업원들은 과학연구기관과 긴밀한 관계에 자제로 꾸며놓은 생산기지에서는 나오는 미생물비료와 생물농약, 식물영양강화제를 온실남새농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의 재종재배를 세우려고 배추종자



##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의원 일행

여러 곳 참관  
네일 포비스 데이비스는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의원 일행이 친화인행이 원산유인, 애육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어머니당의 후대시랑, 미래시랑에 떠날래려 풍치수려한 동해기슭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으로 일컫는 옥아린,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또한 충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평양야구경기장 등을 참관하였다.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의원 일행 원산유인, 애육원 참관

##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전람회개막식이 21일 3대혁명전진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로동부 내각부총리, 리봉남내무경제상, 김인철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경제무역부부 일군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박용식 조선국제전람회사장의 개막인설에 이어 오봉철 대외경제



